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87

2017.12.3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
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_ 눅 2:10-11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더 바이블
- 3 특집 / 대림절
- 4 특집 / 2017 사역박람회
- 7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 8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12/3 (주일) 대림절 첫주, 제5대
김화수 담임목사 부임
- 12/10 (주일) 성찬주일, 정기당회
- 12/20 (주일) 성탄절 기념음악회
- 12/25 (주일) 성탄가족예배, 유아세례식
- 12/31 (주일) 송구영신예배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김화수 목사, 교회 리더 그룹과 상견례

향후 10년에 대한 목회 구상 밝혀



제5대 담임목사로 청빙된 김화수 목사가 부임 전인 지난 11월 26일 지하 식당에서 주님의교회 당회 원 및 은퇴장로와 상견례를 가졌다. 오후 5시부터 김화수 목사, 부목사, 시무장로와 은퇴장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김화수 목사는 19년 만에 주님의교회로 돌아온 소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비전으로 한 향후 10년의 목회 구상을 밝히고 좌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6시부터는 식사와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화수 목사는 12월 1일부터 교회 부목사와 사무국 직원들을 필두로 교회 구성원들과 상견례를 예정하고 있다. 12월 3일 주일에는 부임 후 첫 예배를 집전하며, 오후 4시에는 전 사역부서장, 팀장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함즐함울

대림절, 한 해의 시작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은 교회력
이 시작하는 날이다. 크리스마스 전
4주일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대림절에서 교회
력이 시작한다는 것은 대림절이 교

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
다는 것을 뜻한다.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Advent’는 라틴어 ‘Adventus’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오다’라는 의미
이다. 대림절의 첫주일은 11월 27일

에서 12월 3일까지에 들어있는 주일
로, 올해는 12월 3일이 대림절 첫날
이 된다. 이날부터 단 위에 초를 밝혀
서 성탄절과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을 표시한다. > 관련기사 3면 함즐함울

2017 사역박람회 뜻깊은 성과 거두어

지난 19일과 26일 2주에 걸쳐 2017
년 사역박람회가 교회 로비에서 개
최되었다. 올해에는 꼭 필요한 사
역팀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 예
년과 달리 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
한 30팀만 참여했으나, 26일 행사
가 끝나고 집계한 결과 197명이 사
역에 참여하겠다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어 참여했던 봉사자들을 감격
하게 했다. > 관련기사 4면 함즐함울



종교개혁 이야기 13(마지막 회)

프랑스 종교개혁사

가톨릭의 부정을 고발하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일어난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이후, 그들의 논쟁적인 저서들이 가까운 프랑스에도 반입되어 읽혀졌다. 특별히 에라스무스의 성서인문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던 가톨릭교회 소장파 신학자 그룹을 통하여 라틴어로 출판된 루터의 저서와 프랑스어 번역판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보다 본격적인



잔 달브레의 초상화(1950년작)

프랑스 종교개혁운동은 프랑스의 왕 프랑수와 1세의 누이이자 잔 달브레의 모친인 마르가리타(Marguerite)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남동생의 궁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였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개혁을 꿈꾸는 이들을 환대하고 때때로 보호해주면서 그들의 작품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도왔다. 그녀는 칼뱅과도 서신을 주고받는 등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칼뱅은 그의 명저 기독교강요가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되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모국인 프랑스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했다. 그리하여 제네바에 있으면서도 프랑스 위그노(칼뱅의 개혁운동에 동참한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일컫는 용어)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칼뱅의 도움을 받은 이들에 프랑스 곳곳으로 흩어져 프랑스 개혁교회를 위해 일하였다.

잔 달브레는 마르가리타와 나바라의 영주 앙리 달브레 사이에서 태어

난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친(親)프로테스탄트적 영향을 1560년 크리스마스에 프로테스탄트 예배에서 성찬을 받음으로 개신교도로 회심하게 되었고, 자신의 자작령인 나바라에서 법령을 반포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종교개혁을 통해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녀는 위그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위그노의 어머니라' 불리기도 하였다. 비록 외부로부터 거센 압박으로 인해 평화로운 방법이 실패하고 위그노 전쟁에까지 가담하게 되었지만(물론 위그노 전쟁도 처참하게 패배하여 프랑스가 가톨릭국가로 남게된다), 그녀가 꿈꿔왔던 종교의 평등과 자유는 그의 아들 프랑스 왕 앙리 4세에 의해 낭트칙령으로 꽃피우게 되었다.

이제까지 500여년 아니 그 보다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였던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를 따라보았다. 지면 관계



낭트칙령이 반포된 낭트성

상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종교개혁가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기쁨 또한 충분하다. 연재는 이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한 종교개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잘못된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라.”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마지막 95조)

박주영 목사

* 수정합니다. 칼뱅의 동상은 제네바, 한국 장신대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를레앙에도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더 바이블 (The Bible) 9

6.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특징은 무엇인가?

모세오경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하나의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세오경의 다섯 권의 책은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히브리 성경은 이 책의 첫 낱말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고 그리스도교는 각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다.

(1) 창세기

그중에 창세기는 세계와 이스라엘의 원천적인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창세기는 세상과 인류의 첫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1-9장은 창조주를 통한 인류의 역사서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웃민족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시작의 단면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창세기에 할애된 1-9장까지의 역할이다. 그리고 10-36장은 이스라엘과 이웃주민, 또는 주변 민족들과 역사적 관계와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다음 성경 37-50장은 요셉을 등장시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내러티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은 어디에 있으며, 왜 애굽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다.

<1-9장에 대해서>

창세기 첫 역사인 1-9장은 창조에 대해서 천지창조와 대홍수를 통한 창

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핵심을 바탕으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토라라는 근본 언약에 충실해야 함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과 멸망이라는 상관관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창조와 죄, 구원의 자비와 생명의 기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와 심판, 그리고 구원을 행하시는 근본이라는 사실이다. 이로써 인간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존재이며 삶을 허락 받았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하지만 인간은 삶에서 죄와 함께 거주한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심판, 구원이라는 핵심 주제는 인간이 가진 죄와 생명역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임

을 창세기는 보여준다.

<10-50장에 대해서>

이 후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족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남쪽과 야곱을 통한 북쪽과 북동쪽을 이삭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의 긴장관계는 가족의 역사라는 시각과 주변국의 아람, 앗시리아, 모압, 에돔과도 친인척 관계 속에 있음을 창세기는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의 37-50장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의 갈등과 회복을 설명함으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해서 회복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를 계승해 갈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은석 목사

특집 / 대림절

종말을 반추하며 시작되는 대림절

12월 3일은 대림절의 첫 주일이다. 주후 380년부터 시작된 대림절의 풍습은 11세기에 와서 오늘날과 같은 4주간의 절기로 정착되었다. 대림절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각 주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적 시간이란 하나님이 알려지는 현장이다. 시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럼에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순간과 시간과 날들과 연들의 제한을 받는 우리를 위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 시간(역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장이요, 도구이다. 신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사건들로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육신(Incarnation)”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무한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역사 안에,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self-disclosure)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대림절의 기원과 의미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처음 몇 세기 동안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졌던 절기는 부활절과 오순절이었다. 하지만 2세기 이후부터 등장하게 된 많은 이단들의 도전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에 대한 신앙고백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릴 수 있는 절기, 즉 주현절과 성탄절이 필요하게 되었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함께 만들어지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주후 380년 스페인 사라고사(Saragosa)에서 열린 공의회는 “12월 17일부터 1월 6일 주현절까지 모두 교회에 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관습은 3주에서 7주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지켜지다가, 6세기 교황 그레고리 대제(Gregory the Great, 590-604)에 의해 대림절 기간이 40일로 명시되었으며, 11세기 그레



고리 7세 때에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4주간으로 확정되었다.

대림절을 뜻하는 Advent는 두 개의 라틴어 ‘ad’와 ‘venire’로 이루어져 “오다”(to come to)를 뜻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다. 즉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성육신:Already)과 다시 오심(재림:Not Yet)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절기이다. 원래 이 말은 로마제국에서 로마의 황제가 도시들을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사용하던 것으로, 이것을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오, 왕이라고 생각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단어의 의미와 개념을 바꾸어 사용하게 된 것이다.

부활절기가 부활절을 축으로 사순절부터 시작하여 오순절에 마무리되듯이, 성탄절기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대림절부터 시작하여 주현절에 마치게 된다. 매년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시작되는 대림절은 교회력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함께 생각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종말을 반추(reflecting)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교회력은, 교회의 시간 개념이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특히 북유럽에서는 대림절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과 연결하여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림절에 ‘속죄’의 의미가 첨가되었고, ‘두 번째 사순절(second Lent)’로 간주하기도 했다. 대림절은 서서히 로마 교회 안에서도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인 동시에,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사순절과 대림절 기간에 사용되는 보라색은 주로 회개와 준비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사순절 동안에는 청결과 영적 씻음을, 대림절에는 오시는 왕을 위한 위엄과 존엄을 의미한다.

—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장신대출판부) 중

대림절 주별 의미

첫째 주 : 다시 오실 주님

대림절 첫째 주의 주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이미 2천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일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둘째 주 : 주의 길을 예비함

대림절 둘째 주의 주제는 ‘주의 길을 예비함’이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도들은 마음의 모든 어두운 골짜기

들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만한 마음의 산들은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굽어진 마음들은 평탄한 마음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이다.

셋째 주 : 임박한 오심과 기다림

대림절 셋째 주의 주제는 ‘임박한 오심과 성도의 기다림’이다. 예수님의 임박한 오심(초림,재림) 때문에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관용을 알게 하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넷째 주 : 절망 속의 기쁜 소식

대림절 넷째 주의 주제는 ‘절망 속의 기쁜 소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어두운 때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들려왔다. 이 소식은 절망의 탄식을 감격과 찬송으로 바꾸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오늘 우리 또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과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한 축복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림절을 위한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회개를 선포하도록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사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만유를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며,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공동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 중

특집 / 2017 사역박람회

197명의 사마리아인, 섬김의 문 두드리다

2017년 11월 19일, 26일 이틀 동안 교회 로비에서 2017 사역박람회가 펼쳐졌다.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팀원이 필요한 부서만 참여하도록 방식을 바꾸었으나, 오히려 사역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다는 것이 참여한 사역팀 봉사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그 결과 197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섬김의 문을 두드렸다. 현재 봉사자의 15% 가까운 분들이니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사역박람회 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안내한 봉사자들의 소감과 간증을 한 자리에 모았다.

함줄함울

“예년과 달리 원하는 부서들을 신청 받아 필요에 의해 장이 마련된 사역박람회는 각부서의 인원총원이 간절할수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기웃기웃 하시는 분에게 먼저 다가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며 먼저 말을 건네면서 소개하는 열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 앞에 나열된 문구(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고 마음을 움직여 왔노라고 해서 상담 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손길도 많이 필요한데 청년부는 사역박람회에 관심이 없는지 궁금해서 직접 지하로 내려가 브로슈어를 주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의외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과는 나름 성과를 얻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적극적인 알리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줄함울의 사역박람회 기사 중 은사사역팀에서 은사 점검도 한다는 것을 보고 먼저 은사점검을 받은 후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3부 찬양팀은 가지고 있던 CD를 주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무려 24명의 신규 멤버를 얻었습니다.”

“4년 전에 사역을 하다 중단했었는데 동영상을 보고 다시 해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등록을 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74세의 연세에도 부스를 찾아 주셔서 나도 찬양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기존에 한 분 계시는데 친구 맺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받아주어 고맙다면서 은혜의 1944년생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해외선교부는 해외에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부서 안에 중보기도, 지원 등의 사명도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특정부서 홍보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부서가 하는 것도 좋지만 상시 필요로 하는 부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역할 부서를 찾을 때 부서의 사역 시간대를 알려주면 선택이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2주에 걸쳐 신청해 주신 분이 197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신청하신 분과 부서장(담당자)이 한자리에 모여(1층 소예배실)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사역박람회는 막을 내립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적극적인 광고를 해주신 점, 체면은 다 내려놓으시고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셨던 김용웅 목사님,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사역박람회 결과

날짜	위원회	부서	등록인원
3번째 주일 (11/19)	예배 분과	안내1,2부	5명
		할렐루야 찬양대	1명
	봉사 분과	주방	4명
		주차안내	4명
		도서부	9명
		결혼예식	2명
	복지 분과	전화상담	7명
	전문위원회	상례부	5명
	음악 분과	호산나 찬양대(1부)	9명
		임마누엘 찬양대(4부)	3명
		미시오데이	
3주(11/19) ~ 4주(11/26)	음악 분과	샬롬 찬양대(3부)	24명
	예배 분과	중보기도	21명
	청소년 사역원	학원선교(기도,사랑어머니)	26명
4번째 주일 (11/26)	젊은이 분과위원회	행정, 중보지원, 사역	7명
	EM분과위원회	영어예배부, 어린이영어예배	3명
	어린이 분과위원회	하임, 하늘씨앗, 싹트네, 담쟁이, 포도나무, 햇살뜨락, 아름드리, 아기정원, 어와나, 교육지원1부	3명
		군경선교	7명
	국내선교분과	법조선교	
		의료선교	
		성극	9명
	문화스포츠 선교 분과	호산나무용	4명
	통일선교 분과	통일선교지원,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대외활동지원	14명
	해외선교 분과	해외선교지원, 선교기도, 비전트립지원, 동남아시아, 중아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팀	16명
	섬김과나눔	늘푸른대학운영	4명
	은사사역팀(본부)	중,고등부또는부서미확정 추후 연결예정	10명
전체신청자수			197명

사역소식

주님, 사랑나무, 사랑나무 음악회



사랑나무 친구들이 오랜 기간 정성으로 준비한 핸드벨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사회자가 성경 봉독 희망자를 찾자 '저요!' 하며 너도나도 손을 듭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말씀을 봉독하니 그때마다 성도들이 커다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지난 11월 12일,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막을 내린 제2회 '에이레네 음악회.' 소박한 핸드벨 연주가 왜 특별한 감동을 주고, 늘 접하는 말씀이 왜 그리 새로웠을까요? 그게 주님 뜻인가 봅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마21:16)

서로 다른 우리를 한자리로 모은 주님과 사랑나무, 그 둘은 하나였습니다. 오래전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안아주신 것처럼(막9:36), 주님은 오늘 사랑나무 친구들을 안은 채로 우리 가운데서 계십니다. 사랑나무를 둘러싼 우리 박수는 그들을 안고 계신 주님을 향한 박수였고, 우리 '아멘'은 주님께 외친 '아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막9:37).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소중히 기억하며, 주님의 평강(에이레네)을 빕니다.

이채인 전도사

탈북동포를 위한 따뜻한 겨울옷 나눔



올해에는 통일바자회가 없어서 대신 통일선교분과 위원회에서는 탈북동포를 위한 겨울옷 나눔을 11월 5일부터 2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주님의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셔서 겨울옷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거의 50개의 커다란 마대를 가득 채울 정도로 정성스럽게 기증해주신 옷들은 모두 꼭 필요한 곳들에 보내드렸습니다. 1차로 1층 유아부실에 겨울옷들을 진열하여 협력하고 있는 탈북단체들에서 와서

맘에 드는 옷들을 골라 가도록 하였습니다. 남은 물량은 국내 여러 탈북민 공동체들에 보내드렸고 또 중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 자매들에게도 이 옷들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 동참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옷들을 전달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이 겨울은 정말 따뜻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허준목사

	지원단체	세부 내용
1	우리들학교(대안학교)	학생들이 방문하여 골라 감
2	너나들이 모임	청년들이 맞는 옷 골라 감
3	통일소망선교회	필요한 옷 수령 / 2차 박스 12개 전달
4	새사람공동체교회	탈북민 공동체에 필요한 옷 수령
5	탈북난민인권연합	마대 20개(트럭 1대분), 중국으로 보냄
6	예수마음교회(김포)	박스 12개 전달(복사목 모임)
7	포도원교회(전남 광주)	박스 14개 택배 전달
8	아프리카 청년 방문팀	겨울옷가지 일부

성경 통독을 마치며



11월 25일(토) 2017년 하반기 양육과정으로 시작된 성경 통독이 60여일이 지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함께 읽으며 66권 성경통독을 마쳤다.

144명의 교우들이 신청을 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강당에 모여 함께 통독을 하며 함께 소리를 내어 읽었다. 주중에는 집에서 묵상을 하며 통독을 했고, 토요일에는 목사님의 성경 개요 등을 들으며 짧지 않

은 시간 속에 성경을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음에 모두 감사를 드렸다. 함께 한 시간을 마치며 마지막 날 성경을 함께 읽었음을 서로를 축하하며 스탬들이 준비한 케익과 새싹비빔밥을 함께 나누며 서로 함께함에 격려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짐에 귀한 시간을 느끼며 늘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서로가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글함글

남선교회 조찬기도회 및 성전 대청소



남선교회에서는 11월 18일(토) 이른 새벽 6시 10분에 조찬 기도회를 가졌다. 3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다.

1부는 한철호 선교사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2부는 정기총회로 회칙개정을 하였다.

3부는 여선교회에서 새벽부터 수고로 제공한 아침식사를 하고 대청소

를 시작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현재 3개부서로 조직된 부서를 5개 부서로 분할을 하였으며 제1남선교회는 (만 71세 이상), 제2 남선교회에서는 (만 66세~만 70세), 제3 남선교회(만 61세~만 65세) 제4남선교회(만 56세~만 60세) 제5남선교회(만 56세미만)으로 회칙이 개정되었다.

함글함글

사역소식

제5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음악회

제5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음악회가 11월 29일 수요일에 대예배실에서 (사)섬김과나눔과 미시오데이 선교 찬양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지역사회를 위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속에 많은 교우들과 (사)섬김과나눔이 위탁경영하는 단체에 사역하는 분들과 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미시오데이 선교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들으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사)섬김과나눔에서는 사회복지와 공익사업을 위해 늘푸른대학과 남천 경로당 무료급식, 독거노인 영양죽

배달과 생활지원 및 불우 이웃 특별 지원 등 자체 사업을 하고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가락본동 어린이집과 송파교육 복지센터를 위탁경영하고 있다.

미시오찬양대는 교도소 선교와 개척교회 위문, 군부대 선교, 장애인 복지재단, 보훈병원 선교 등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찬양과 위안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사)섬김과나눔과 미시오데이 선교



찬양대에서는 이 세상에 생명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우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이 있기를 기원한다.

함줄함줄

기고

주님의교회와의 만남

서광교회(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화리 대대급교회)는 30년 전 군종으로 근무한 용사가 건축한 예배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군종은 복무하던 부대에 예배당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 날마다 주변 개천을 찾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제대연기까지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은 법적으로 허락이 될 수 없어 제대 후 예배당을 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전역한 후 건축자재를 최전방 현재 위치한 곳까지 보급하여 예배당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용사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교회에는 120여명의 용사들이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진 예배당 안에 출입하는 또 다른 용사들 중에 미래의 한국교회를 책임질 목회자,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앉아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3년 전 “군선교가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라는 응답을 받고 군선교사를 지원하고 대대급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응답과는 달리 그 이후의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특히 일반목회와는 달리 자비량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어

떻게 하면 일반교회처럼 양육팀에 헌신한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힘든 군생활 가운데 위로와 휴식을 찾아 교회를 찾아오는 용사들에게 따뜻한 간식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주님의교회(군경선교부장 이성훈 안수집사)에서 2년 전부터 서광교회와 같은 대대소속 고성재교회(민통선900미터 고지에 위치)와 만남이 이루어

군종으로 근무한 병사가 제대 후 자재를 날라 헌신으로 세운 교회 비바람에 꺾인 십자가 다시 세워주신 주님의교회 고마움에 힘을 얻어 90%의 무신자에게 하나님 전하는 어려운 길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기도제목

1. 추운 날씨가 시작되어 최전방 근무에 수고하는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위해, 서광교회와 900미터 GOP고지에 있는 고성재교회 방문에 사고 없도록
2. 90%이상 무교인 병사들과 장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제자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졌습니다. 주님의교회와의 만남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큰 태풍에 십자가가 꺾여 지붕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만약 재정만 있었다면 곧바로 복구할 수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다. 하루는 군경선교부장 이성훈 안수집사님께서 “한 번 견적 내서 일을 추진해보시죠. 그리고 교회입구 계단도 낡았는데 이참에 교회에 청구해보겠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허락이 안 되면 십자가 복구비는 저라도

내겠습니다.” 그 말씀 한 마디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간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임을 믿고 기도를 하며 언젠가 답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시기에 지난 10월말 교회에서 허락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십자가를 내려 옆에다 겨우 매달아 놓고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는 마음으로 몇

군 선교는 황금어장이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 선교도 녹록치 않습니다.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무교도 종교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 감히 종교생활을 권면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자 하는 쉬운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어떤 용사가 말하기를 자기는 일주일을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점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을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용사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교회마다 20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특히 사회에서 교회도 예배도 성경도 찬양도 예수 믿는 자들도 전혀 접해보지 못한 90%의 용사들이 처음 찾는 곳이 대대급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어쩌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인생전체에 처음이요 마지막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고민을 나누는 대대급 부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아무도 찾아와주지 않는 최전방교회를 찾는 용사들을 위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군선교교역자들을 도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주님의교회 군경선교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무엘 목사 / 군선교교역자

개월을 보냈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교회십자가가 제자리에 달리지 못한 것을 보고 종교가 없는 지휘관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십자가와 계단공사를 하게 됐다고 전하자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십자가와 계단공사를 앞두고 기도하는 중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환상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심을 느꼈습니다.

기고

주님의교회가 청소년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까닭

4차 산업혁명의 교육적 대전환을 맞은 세계 각국은 순수기초학문과 실용, 융복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육성과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환경과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일방적 강의 중심의 '집합식 교육'은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21세기 교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득불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자원은 '청소년'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세계적으로 청소년이 부족한 시대가 옵니다. 즉 뛰어난 청소년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 정관에는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도록 중요한 실천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과의 만남이라는 역사와 현실을 고려할 때

주님의교회는 청소년사역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속하지만 사실 교육과정이나 방향은 개발도상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교회는 14년 전 정책당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위해 8개년 계

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청소년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교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집중지원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오늘 만을 살 것인가?" 지금이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사역을 아래와 같이

“

청소년 사역은 주님의교회의 정관에도 밝히고 있는 중요한 실천 이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님의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

획을 제안 했으며 그 실천사항으로 "청소년 비전 헌금 모금"과 "교회에 산비율 25%"를 배정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청소년교육에 관한 한 우리나라 사회에 영향을 주는 비

실천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교회 교육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의 교육적 대전환을 맞은 시점에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교육을 시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위원회와 당회원들과 아울러 성도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

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래의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1. 주일학교 시설과 학습방법 개선 방안
2. 3세에서 6세까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
3. 교양양성교육(청년부 및 30~40대 중심)
4. 성경 중심의 인성교육
5. IT/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내용과 기록과 나눔과 같은 학습 활용을 촉진
6. 정신학원 지원 강화(미션스쿨로서의 본분을 회복)
7. 학생 지도자 양성
8. 문화/체육 시설 구비
9. 가칭 "청소년교육개선연구소(교육개발정책연구 및 제안)" 설립

"우리의 영유아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 실천사항들을 항목별로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공감과 격려, 그리고 동행을 기대합니다. **염주형 은퇴장로**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49

재단 설립 준비



1950년 5월 건립된 대강당

6·25사변이 끝난 후 학교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정신학원의 소유

였던 교지와 학교 건물을 확보해야 했다. 1954년 2월 17일, 유엔군으로

부터 교지와 교사를 명도 받았다. 1954년 3월 7일에는 재단 설립을 위한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어, 조속한 시일 안에 재단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도록 결의했고, 과학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 원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 년이 다 되어가는 1955년 2월 17일,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이 승인되었다. 같은 해 정신빌딩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건축비는 정신학원 재단 설립을 위하여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온 1만 달러를 한국선교회에 청원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11월 8일에는 과학관 건축을 위해 필요한 총 경비 10만 달러 중 8만 달러를 미

국 북장로회 선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무렵 학교의 운영은 경기노회와 동창회가 맡아서 하고 있었지만,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마련이 자체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했다.

1955년 과학관과 정신빌딩 건축 예산은 다음과 같았다.

- 1)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보조금 - 19,585,000환
- 2)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추가보조금 - 11,311,000환
- 3) 경기노회 - 107,000환
- 4) 동창회 - 167,000환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아이들이
**노민우 아기**

2017년 7월 7일생

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의 축복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3.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녀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빠 노은성 / 엄마 신현영, 2017년 11월 12일 3부 예배

**장현희 아기**

2016년 9월 25일생

1.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2. 세상의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항상 안전이 함께 하길
3. 받은 사랑을 기쁘게 베푸는 마음이 착한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빠 장동진 / 엄마 남미현, 2017년 11월 19일 3부 예배

**장재희 아기**

2017년 7월 20일생

1. 여호와와 재희에게 복을 주시고 재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재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재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3. 부모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희를 키우는 지혜로운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재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기도합니다.

아빠 장동현 / 엄마 권유정, 2017년 11월 19일 3부 예배

공동체 소식**1교구의 기억법**

11월 24일 저녁 7시 교회 지하식당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교구 가족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은 특히 11월 말로 임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 교구 담당 임창진 목사의 송별식을 더하여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교구식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탕을 중심으로 맛깔진 음식이 준비된 가운데 식사시간을 마치고, 임창진 교구 담당 목사의 마지막 설교가 있었다. 임창진 목사는 그동안 만났던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던 세 이별 이야기를 소재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하여 감동을 주었다. 이어진 송별회에서 임창진 목사에게 구역 식구들이 쓴 엽서를 낭독하고 선물을 증정하며 이별의 아쉬움을 함께 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줄함줄**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월~금)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공동체 소식 / 겨자씨 탐방****1-13 겨자씨**

지난 11월 10일, 저녁 7시가 되기도 전에 1-13 겨자씨 여덟 가정의 방이 동 왕진무 집사(김점순 권사) 댁에 속속 모여들었다. 이 겨자씨는 처음부터 각 가정으로 돌아가며 모이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어찌나 반가워들 하는지 친 동기간을 만나는 것만 같았다. 더구나 여름 전에 새로 오신 이채수 집사 내외와 몇 달 전 어깨수술로 재활중인 김미 집사까지도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기에 바빴다. 이윽고 정성스레 준비한 다과를 들며 담소가 그치지 않았다가 이형구 겨자씨장의 '에헴' 한 마디에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이 날은 찬송과 기도에 이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제6과 '공동선과 참여-정치'(말씀: 약3:13-18, 잠24:1-22) 본문을 읽고 '공동선'과 그 실천에 대한 열띤 나눔과 소통

이 이어졌다. 한 분은 분위기가 자랑스러운지 여기가 장신대 분교인가?라며 공적 무관심으로 만연된 성도의 삶에 공동선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자 겨자씨장의 인도로 중보기도와 찬송 후 주기도문 암송으로 1부를 마치고 2부에는 길고 떠들썩한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겨자씨는 각자가 성경재정사역, 군선교, 주방봉사와 죽배달, 주차안내, 성가대 등 섬김과 나눔에도 적극 참여하는 주님의 일꾼들로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Close relationship with God)와 서로간의 끈끈한 교제(Close koinonia)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겨자씨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산 증인 같은 자부심이 가득한 것 같다.

왕진무 집사

알립니다**1. 늘푸른대학 제 9기 종강(수료식)안내**

일시 : 12월 12일(화) 오전 10:30 중예배실 (지하)

2. 중보기도부 12월 월례회 및 기도회

일시 : 12월 7일(목) 오전 10:30 소예배실(1층)

문의 : 김경미 권사(010.2235.1067)

3. 사역박람회 신규사역 신청자와 팀장 만남

일시 : 오늘(12/3) 낮 1:30

장소 : 1층 소예배실

4. 제3여전도회(52~55년) 수서복지관 봉사

일시 : 12월 6일(수) 오전 11:30 교회정문

문의 : 장해숙 집사(010.7195.8146)

5. 선교 뜨거워 관심 있으신 분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전 11:00 아기부실(지하)

문의 : 전은숙 권사(010.4082.3502)

6. 2부 찬양대 반주자 모집 : 오르간, 피아노 각 1명

문의 : 김대환 목사(010.2910.3559)